



양행 구리아 OECD 사무총장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TV 회장 대담

출구전략 시기상조...신호는 계속 보내야



“현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야 한다.”

제3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참석차 방한한 양행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27일 부산 벡스코 현장에서 장대환 매일 경제신문·TV 회장과 대담을 하고 “출구전략을 시행한다는 것은 경기 부양책을 철회한다는 의미”라며 “인위적인 부양책 없이 글로벌 경제가 자체 회복하기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부양책을 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리아 사무총장은 부양책이 초래할 부정적인 충격을 감안해 모든 경제주체에게 출구전략이 필요하 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장 대환 회장과 양행 구리아 사무총장 간 대담 내용이다.

OECD國 과도한 부채·高실업 문제 한국경제 밝아...녹색성장 정책 훌륭 GDP 보완할 행복·웰빙지표 개발중

◀ 구리아 사무총장

▶ 장대환 회장



▶ 장대환 회장 =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를 대다수 국제기구·기관들이 예측하지 못했다.

▶ 양행 구리아 OECD 사무총장 = 규제 부분에서 커다란 시장실패가 발생했다. 감독 기능도 취약했다. 기업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있었고 위험관리도 부족했다. 총체적인 실패로 보면 된다.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글로벌화하고 총출통하게 엮여 있는 지 알지 못했다. 가장 글로벌화하고 선진화된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하면서 위기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경제에 컨베이어 벨트 구실을 하는 금융시스템 붕괴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 장 회장 =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마틴 펠드스테인 하버드대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은 세계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정부가 안고 있는 대규모 부채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OECD가 바라보는 세계 경제 미래는.

▶ 구리아 사무총장 = 많은 부분이 열려스럽다. OECD 국가 부채 규모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에 달한다. 일본은 200%를 넘어선다. 부채 규모가 과도하면 정부 경제정책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 선택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업사태다. OECD 국가에만 15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다. 내년에는 실업자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경제가 회복신호를 보내더라도 실업률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도 안정을 찾기는 있지만 자본 재확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 장 회장 = 과도한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구리아 사무총장 =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소비가 살아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든 소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를 늘리면 부채가 늘어난다. 부채가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문제는 ‘부채 축소=소비 축소’로 연결돼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을 통한 소비 확대다.

▶ 장 회장 = 최근 세계 경기 회복 조짐으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 구리아 사무총장 = 지금은 출구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러나 출구전략을 단장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출구전략을 시행한다는 것은 부양책 활용을 철회한다는 의미다. 지금은 부양책을 유지해야 할 시기이다.

▶ 장 회장 =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 구리아 사무총장 = 한국 경제 미래는 밝다. 지난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2.9% 성장한 것은 놀라운 결과다. 한국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 정책뿐 아니라 중장기 정책도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 교육·리서치·녹색성장 등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다만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 특성상 다른 국가들도 함께 회복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장 회장 = OECD에서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지수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 구리아 사무총장 =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GDP는 여전히 유용한 지표다. 그러나 GDP만으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GDP 지표를 보완하고 현실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발전과 웰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표 개발을 통해 정부나 기관들은 사회·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발표하는 ‘레가툼 번영 지수’가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 장 회장 = 그렇다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나.

▶ 구리아 사무총장 = OECD는 사람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발전과 웰빙 수준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어렵다. 다만 OECD는 행복·웰빙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리 지표(proxy indicator)를 찾고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행복·웰빙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를 더욱 신장시키고 국가지배구조(governance)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장 회장 = 어떤 대리지표들을 생각하고 있나.

▶ 구리아 사무총장 = 환경, 삶의 질과 같은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표를 통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다면 정부·기관들이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맨 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103개국에서 정부 수반·국제기구 대표·기업 CEO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세계포럼 부산서 개막

녹색 글로벌 이슈 한국역할 중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식적인 통계 수치와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수치 간에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OECD와 통계청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포럼 개막식에서 양행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통계나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등 정량적인 평가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복잡한 사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해지기 쉽다”며 “전 세계 정치·사회·경제 지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공유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개막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처하는 데 한국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날로 튀르키예 슬로베니아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통해 “GDP 지표는 지속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 발전을 측정할 때 GDP 기준으로부터 바라는 안 된다”며 “공정한 소득 분배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는 한편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무엇을 측정할지가 결정된다”며 “사회와 정 의, 인권 부문에 대한 측정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비시장 활동과 복지는 물론 통근·여가 시간까지 측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세계 각국이 추구해온 양적 성장 위주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OECD 세계포럼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만 집중했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 발전을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 행복 증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번 포럼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네루 세계은행 국장 부정확한 통계가 위기 확산에 한몫

“나집만이 GPS로 바뀐 것처럼 다양한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통계 지표가 필요하다.”

세르게이 스테파닌 러시아 감사원장(전 총리)은 27일 OECD 세계포럼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총회에 참석해 통계 지표도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파닌 감사원장은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구체화하기 어려워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다면 정부·기관들이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지표 개발이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것이 진정한 국가 발전이나”는 데 대해 국제기구들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크람 네루 세계은행 동아시아 지역 빈곤국장은 부정확한 통계 분석이 경제위기 확산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네루 국장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만 할 것이 아니라 수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다면 위기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석 내용이 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기가 확산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바데 우마르 알다파 유엔서아시아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은 위기를 예방하는 통계학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확한 통계는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취재팀 = 박봉권 차장·박동민·안정훈 기자·사진/박상선·김호영 기자

www.igm.or.kr

IGM 세계경영연구원

대한민국 CEO 여러분,
임원이 내리는 결정은
그 하나하나가 적어도 **몇 억**짜리입니다
그 결정은 회사에 **몇 년, 몇 십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임원은 제대로 교육받고 있습니까?

2000명의 CEO와 임원이 공부하고 있는 동양 최대의 임원교육기관, IGM 세계경영연구원

IGM 임원교육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당신 회사에 꼭 맞는 맞춤형 교육을 설계 받으십시오 Tel. 02-2036-8320